

#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

-1990년대 미국과 2000년대 한국 페미니즘 담론 비교연구-

이명호\*\*

## 〈차례〉

1. 페미니즘의 죽음 혹은 실종?
2. 1990년대 미국 페미니즘: 젠더이분법의 해체와 여성의 내적 분화
3. 2000년대 한국페미니즘의 지형변화: 신유주의의 확산과 계급의 복귀
4. 울프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페미니즘의 미래: 차이를 통해 도달하는 보편성의 지평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90년대 미국과 2000년대 한국 페미니즘 담론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읽어내고 버지니아 울프의 통찰에 힘입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990년대 미국과 2000년대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의 죽음이나 실종을 선언하는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대두한다. 신자유주의의 지배와 더불어 젠더 대립구도가 약화되고 여성 내부의 차이가 부각되면서 관습화된 성차가 흐려지고 혼종적 젠더들이 등장한다.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올드 페미니스트와 신판 여성성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자기개발담론이 주도권을 획득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트라우마적 순간으로 사라졌던 계급이 복귀한다. 계급차이가 인종문제로 치환되는 미국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계급의 복귀는 여성 내부의 양극화로 나타난다.

\*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을 받았다(과제번호-20080679).

\*\* 경희대학교 영미어학부 부교수

한국과 미국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젠더지형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본 논문은 페미니즘의 실천성을 위해 ‘하나가 아닌 성’이라는 이리거레이의 주장을 버지니아 울프의 주장과 결합시키고자 했다. ‘하나가 아닌 성’은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의 여성들이 가진 차이와 복합적 경험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남성적 상징질서에서 잔여이자 잉여로 존재하는 여성성을 의미한다. 이리거레이가 반사적 여성성과 구분하여 잉여적 여성성이라 부르는 이 새로운 여성성은 여성 자신에게도 낮은 타자이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지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그것은 남성적 하나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단독적 개체로서 개개 여성들의 고유한 가능성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잉여적 여성성이 버지니아 울프가 자의식적 젠더 대립구도를 넘어선 지점에서 발현되는 성적 특질이라 부른 것과 개념적으로 상통할 수 있다고 본다. 울프는 여성이 남성지배사회의 국외자로서 갖는 독특한 차이에 기반하여 인류의 해방과 평화의 증진이라는 보편적 대의에 기여할 것을 주장했다. 성차를 통해 도달하는 보편성의 지평은 우리 시대 지배 권력으로 군림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로부터 자기 자신을 빼냄으로써 그 질서의 구조적 폭력에 맞서는 주체적 행위, 개별 여성으로서의 단독적 차이를 여성이라는 가상의 집합성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거부하면서 한 개체적 존재로서 시도하는 저항행위이다.

핵심어: 단독성, 페미니즘, 포스트페미니즘, 차이, 잉여적 여성성, 젠더 트러블, 계급, 보편성, 정체성, 버지니아 울프

## 1. 페미니즘의 죽음 혹은 실종?

페미니즘 관련 도서 중에서 이례적으로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라선 여성학자 정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이 출판된 것은 2005년이다. 출판사의 설득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책제목은 페미니즘을 하나의 의미 있는

‘도전’으로 제기하는 담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책이 출판된 지 채 5~6년이 지나지 않아 페미니즘을 기존질서에 대한 급진적 도전으로 여기는 태도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 글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페미니즘 문학 관련 글들을 찾아 읽어보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느낀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선뜻 페미니즘 문학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sup>1)</sup> 페미니즘을 특집으로 꾸민 예외적 경우도 페미니즘 문학의 활력과 갱신을 논의하기보다는 도전과 모색, 심지어 좌표상실을 인정하는 수사가 지배하고 있다.<sup>2)</sup> 이를테면 김양선은 2000년대 한국문학비평을 논하는 글에서 “여성문학비평과 이론의 좌표상실, 작품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여성문학비평의 과잉담론화가 200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sup>3)</sup>는 비판적 진단을 내리고 있다. 임옥희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를 3기로 나누면서 여성운동이 제도화되면서 성공을 구가하던 시절을 넘어 2007년 MB정부 이후 페미니즘의 “나쁜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4)</sup> 임옥희의 진단에 따

- 
- 1) 이 글은 한국여성문학회 2011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시간에 쫓겨 뒤늦게 배달된 발제문에 대해 세심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 준 김영미 선생님과 청중석에서 근본적 질문을 던져준 한국여성문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2)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2000년대 들어 페미니즘 문학을 꾸민 특집으로는 『문학수첩』 2006년 봄호 ‘여성문학을 묻다’와 영문학 학술지 『안과밖』 21호, 2006년 하반기 ‘오늘의 페미니즘, 도전과 변화’가 있다. 앞의 특집이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적 성격을 비판하거나 성토했던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뒤 특집은 한국여성문학을 포함하여 영미권 페미니즘 조류의 변화를 두루 살피고 있다. 보는 시각이나 비판의 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페미니즘에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고 파악하는 점은 동일하다.
  - 3) 김양선,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밖』 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41쪽.
  - 4) 임옥희, 『채식주의자 뱀파이어: 폭력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기』, 여이연, 2010, 8쪽. 이 책에서 임옥희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페미니즘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1기) 1987~1997: 민주화투쟁과 여성운동의 독자성 추구, 2기) 1997년~2007년: 좌과정권 10년 동안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협상과정, 3기) 2007년 MB 정권 이후 여성운동의 생존과 다변화 모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7년에서 2007년 사이 10년을 좌과정부라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른바 민주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은 그 기간 동안 한국여성운동은 여성부 신설, 호주제폐지, 성매매방지법, 군가산점, 모

르면, 모든 가치를 화폐가치 하나로 평정하는 돈의 폭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페미니즘이 타자와 공존하는 대안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도화되거나 유행담론으로 소비되는 “나쁜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 온 여성 비평가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의 위기와 죽음이 논의되는 한편으로, 비평적 유행에 유달리 민감한 한국문학 비평계에서 페미니즘문학논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1990년대 문학이 ‘여성작가와 여성글쓰기의 시대’로 불릴 만큼 문학계에서 여성과위가 두드러진 시대였다면, 2000년대 문학에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좌표상실과 실종현상은 그 자체 하나의 ‘징후’라 할만하다. 2011년 가을호 『실천문학』은 ‘2000년대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기획특집을 꾸리고 있는데, 새로운 밀레니움의 첫 10년을 규정했던 15개의 키워드들 중 여성과 관련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근대문학의 종언’이 뽑힌 것을 보면, 비록 사망선고를 둘러싼 분분한 논란이긴 했지만 (근대)문학의 존재정당성에 대한 담론은 하나의 의미 있는 담론적 사건을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페미니즘 문학은 담론의 지평에서 사라진 것일까? 사라졌다는 표현이 지나치다면 ‘희미해졌다’로 고쳐도 좋다.

1928년 씌어진 『자기만의 방』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여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과 1년에 5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글쓰기에 필요한 정신적 자유의 조건이 바로 자율적 공간과 돈이라고 본 것이다. 울프의 말마따나 500파운드로 상징되는 경제적 독립이 피억압자들이 빠지기 쉬운 원한과 두려움의 함정에서 벗어나 사물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정신의 자유를 가져다준다면, 2000년대 한국의 여성작가들은 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일까? 여성이라는 데 대해 과도한 자의식을 갖거나 남자보다 못할 바 없다고 애써 주장하는 대신 여성

---

성보호,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 국공립대 여교수 할당제, 정부 부처 여성 할당제 등 여성의 요구를 정부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결과로 여성운동이 국가에 기대고 여성운동가들이 관료화되어 여성운동이 순치되는 부정적 상황에 봉착했던 것도 사실이다.

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인가? 아니면 여성들이 제도적 평등을 일정 정도 획득한 후 이분화된 남녀 젠더 대립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젠더 이외의 사회적 범주가 더 큰 규정력을 지니게 된 역사적 변화의 결과인가?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보다 여성들 내부의 계급적·인종적 차이가 더 크게 부각되고, 젠더가 흐려지거나 모호하게 뒤섞인, 이른바 ‘혼종적’ 젠더들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이럴 경우 성차와 젠더불평등에 관심을 쏟는 페미니즘은 여전히 급진적 도전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발표한 글에서 정희진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세계를 파악하는 인식론이자 실천으로서 여성주의는 “보이지 않던 젠더 구조를 드러냄gendering과 동시에 그러한 젠더구조가 (일시적이고 우연한) 역사적 산물임을 강조함으로써 젠더를 해체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sup>5)</sup>고 주장한다. 젠더의 가시화에 무게를 두었던 이전의 입장에 비해 젠더의 해체 쪽으로 무게추가 이동해 있다. 이런 무게중심의 이동에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일국 내 젠더격차보다 인종과 국적에 따른 계급격차가 성별범주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상황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페미니즘은 어떤 위상 조정이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글의 초두부터 질문이 많아졌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 이런 물음들은 비단 한국문학만이 아니라 영미문학 페미니즘에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등장했던 글로벌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격렬하게 제기되면서 페미니즘진영 내부의 세대갈등과 인종대결의 형태로 전개된 차이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여성들이 처해있는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페미니즘이 공히 새로운 형태의 전환과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은 영문학 연구자로서 페미니즘의 제도화와 젠더 지형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현상을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읽어보고 버지니아 울프의

5)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남성성과 젠더』, 권김현영 편, 자음과모음, 2011, 17쪽.

통찰에 힘입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 2. 1990년대 미국 페미니즘: 젠더이분법의 해체와 여성의 내적 분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여성운동 내부에서는 이분화된 젠더범주가 수행하는 배제기능에 대한 경계가 확산되면서 남성/여성, 남성성/여성성이라는 전통적 대립구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여성운동 바깥에서는 페미니즘의 종말을 암시하는 담론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1998년 6월 29일 시사주간지 『타임』은 ‘페미니즘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내는데, 흥미로운 점은 페미니즘의 종말을 가져온 주체가 다음 아닌 젊은 세대 여성들이라는 사실이다. 『타임』은 수전 앤서니, 베티 프리단, 글로리아 스타이넵과 함께 200년에 걸친 미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네 명의 인물 가운데 하나로 당시 미국 TV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던 드라마 <엘리 맥빌>의 여배우 칼리스타 플록하트를 선정한다.<sup>6)</sup> 하버드 법대 출신의 지적이고 유능한 변호사이면서도 거식증을 연상시키는 바삭 마른 몸매에 여성스러운 옷치장을 하고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엘리의 모습은 페미니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녀는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닦아놓은 제도적 평등의 결실은 누리면서도 페미니스트적 목표는 거부하고 가부장제가 마련한 규범적 여성다움에 자발적으로 빠져드는 신세대 여성들을 대변한다. 특집호에 실린 한 기사는 “요즈음 쉬크한 영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고 물은 뒤 바로 “그들의 몸, 그들의 자신”이라고 대답한다. 엘리의 대명사가 된 ‘나 먼저 페미니즘’(me-first feminism)은 여성해방을 위한 집단적 실천으로서의 페미니즘이 나르시

6) 참고로 이 드라마는 국내 케이블TV에도 방영되어 <섹스 앤 더 시티>와 더불어 젊은 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소위 ‘미드 컬트’ 현상을 일으킨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증적 개인주의로, 그 중에서도 특히 규범적 여성성을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생산하는 몸과 몸치장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소비주의적 육체주의로 퇴행해 들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젊은 세대 여성들의 탈페미니즘화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서적 반발로 나타난다. 이를 테면 1984년 모나 차렌은 『내셔널 리뷰』지에 「페미니스트의 실수」라는 글을 실는데, 글의 논조는 언니 페미니스트들을 격노시키는 데 충분하다. 이 글에서 차렌은 페미니즘이 “고소득, 담배, 한부모의 선택, 강간위기센터, 개인의 신용, 자유연애, 여성 산부인과 의사”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대다수 여성들의 행복이 걸려있는 한 가지, 남자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한다.<sup>7)</sup> 차렌 같은 젊은 세대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은 개인적 행복을 빼앗고 성적 쾌락을 금지시키는 억압적 어머니/언니 담론으로 비친다. 이 어머니/언니들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소녀들은 자유롭게 남자를 선택하고 성적 쾌락을 즐길 권리를 요구한다. 섹시한 몸으로 표상되는 신관 ‘여성성’과 페미니스트 사이에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라는 어구가 소녀들의 관용어로 자리 잡는다. 페미니즘이 사라진 공간에서 귀엽고 섹시한 소녀들은 포스트페미니스트의 상징으로 부각된다.

세대론적 함의를 진하게 풍기는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신조어가 대중매체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 포스트가 ‘탈’을 의미하든 ‘이후’를 의미하든 그것이 페미니즘 앞에 붙는 순간 페미니즘의 견고한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페미니즘이 추구했던 해방의 목표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페미니즘은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는 함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의 목표는 페미니즘 없는 세상이다. 그런 만큼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페미니즘 없는 세상을 말해도 좋을 만큼 젠더 억압과 불평등이 사라졌는가이다.

7) Mona Charen, “Feminist Mistake”, Deborah Siegel, *Sisterhood Interrupted: From Radical Women to Girls Gone Wild*(New York: Palgrave, 2007), 105쪽에서 재인용.

페미니즘의 위상 해체를 둘러싼 이런 논란은 급기야 80년대 미국페미니즘 문학비평의 아이콘으로 군림했던 『다락방의 미친 여자』의 공저자 중 한 사람인 수잔 구바로 하여금 ‘무엇이 페미니즘을 병들게 하는가’라는 반격성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sup>8)</sup> 구바는 페미니즘의 위기를 일종의 비평적 거식증에 비유하면서 자신과 입장이 다른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더 억압받는 사회적 위치가 정치적 올바름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여기는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the politics of identity, 여기서 정치적으로 가장 올바르고 진보적인 집단은 다중적 억압이 중첩된 가난한 흑인여성이나 제 3세계 하층계급여성, 성적 소수자여성이다)와 프랑소 발 이론으로 무장한 탈구조주의를 그 원인으로 든다. 구바는 현재 페미니즘이 처한 거식증적 상태를 남성이데올로기 비판-여성문학전통의 복원-여성 내부의 차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페미니즘 비평의 3단계에 더해 4단계라 부르며, 이를 ‘메타비평적 불화’(metacritical dissension)라 칭한다.<sup>9)</sup> 여성 내부의 차이를 지적하는 경향은 세 번째 단계에서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4단계에서 이 흐름은 차이의 생산적 인정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 어떤 공통성도 지워버리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입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구바의 판단이다. 거식증은 종종 자살로 귀결된다. 구바에 따르면 인종화된 정체성의 정치가 여성들이라는 단어

8) Susan Gubar, “What Ails Feminist Criticism?”, *Critical Inquiry* 24.4 (1998) 참조. 구바의 글에 대한 반박으로는 Robyn Wiegman, “What Ails Feminist Criticism? A Second Opinion”, *Critical Inquiry* 25.2 (1999) 참조. 페미니즘의 질병을 둘러싸고 수잔 구바와 로빈 위그만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 대한 국내의 소개 및 비판적 점검으로는 정소영,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페미니즘 비평: 보편성과 여성, 그리고 문학」, 『비평과 이론』 12권 2호, 2007년을 볼 것.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전 학회에 발표할 당시 구바의 논문 제목은 더 자극적인, ‘누가 페미니즘을 죽였는가?’였다. 여성을 여성의 살인범으로 돌리는 자극성 때문에 제목을 ‘누가 페미니즘을 병들게 했는가?’로 바꾸긴 했지만, 구바의 글에는 선배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한 후배 탈구조주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원망이 흐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의 문제제기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백인 중산층 여성에 페미니즘의 틀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수성전략으로 공격당한다.

9) Susan Gubar, 위의 글, 886쪽.



를 특정 소수의 여성들만 대변할 수 있도록 슬립화시켰다면, 탈구조주의는 이 용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페미니즘이 학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제도화의 길을 걷는 동안 자살로 끝날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가! 구바의 글은 자기모순에 빠진 페미니즘의 현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페미니즘을 이렇게 몰고 온 세력들에 대한 강한 분노로 물들어있다. 인종적 정체성의 정치학에 대한 구바의 비판은 벨 후스, 샌드라 모한티, 가야트리 스피박 등 백인 페미니즘 비판을 선도하는 주요 이론가들을 겨냥하고 있고, 탈구조주의 이론가로는 줄리아 크리스테바, 주디스 버틀러, 도나 해러웨이 등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 구바의 평가에 따르자면, 백인 페미니즘이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에 공모했다는 주장은 애초의 올바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백인 페미니스트의 자기반성까지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평적 폐기’(critical abjection)로 이어졌으며, 흑인여성, 제 3세계 여성, 성소수자 여성 등등 비평가의 정체성의 표지가 곧바로 담론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조악한 형태의 ‘비평적 선출’(critical election)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런 비평적 선출의 결과 여성들 사이에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여성은 수많은 하이픈(hyphen)으로 쪼개진 병든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다.<sup>10)</sup>

스피박은 인종적 정체성의 정치를 탈구조주의 이론과 결합시킨 이론가이다. 바로 이 결합 덕분에 그녀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페미니스트 이론가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구바가 이 글에서 비평적 ‘난해주의’(obscurantism)라 부르는 탈구조주의의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인도여성이라는 자신의 인종적 위치가 존경할만한 제 3세계 하위 여성의 대변자로서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부여해주는 알리바이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스피박은 “다른 모든 명칭과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이름은 그것이 아무리 정치적이라 해도 언어오용(catachresis)”이며,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사실적 지시체(literal referent)로

10) 위의 글, 881~886쪽 참조.

상상할 수 없는, 권리를 박탈당한 여성을 여성이라 부른다”고 주장한다.<sup>11)</sup> 여성이 언어와 담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언어적·담론적 구성물이고, 이 구성은 필연적으로 오용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면, 언어 바깥에 “사실적 지시체”이자 “본질”로 존재하는 여성은 없다. 백인여성들은 자신의 거울 속 얼굴을 보고 그 이미지에 따라 대문자 ‘여성’을 정의하지만, 스피박 자신은 어떤 담론을 통해서도 온전히 말해질 수 없는 하위주체 여성들을 본다. 구바의 평가에 따르면, 스피박이 하위주체 여성들을 바라보는 것은 인도여성으로서 자신의 이미지와 주류 페미니즘 유권자 사이의 괴리를 인식했기 때문일 뿐 아니라 하위주체 여성들을 지워버리는 담론적 동일시를 끊임없이 지연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하위주체 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피박은 부정적 대답을 내놓는다. 재현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현은 언제나 권력의 그물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위주체여성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담론을 탈구시키고 지연시키는 끝없는 해체작업이 스피박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제이다.

여성범주와 젠더 이분법의 해체를 가장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인물은 퀴어 이론가 주디스 버틀러이다. 버틀러에게 여성은 문법적 허구이자 실패에 처할 수밖에 없는 담론적 구성물이다. 버틀러의 복잡한 이론적 수사 속에서 페미니즘은 강요된 이성애 규범에 사로잡힌 체제 내적 담론이자 성적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지배담론으로 비판된다. 이성애 규범의 효과로서의 젠더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억압적 ‘둘’의 논리를 벗어나 퀴어의 패러디적 전복을 통해 여러 개로 분화된다. 복수의 젠더들이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는 이른바 젠더 트러블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아무 문제없이 ‘여성’으로 호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많은 젠더들의 배제 위에 서있는 문제적인 ‘그녀’로 재조정된다. 여성은 담론에 의해

11) Gayatri Chakravorty Spivak, “Feminism and Deconstruction, Again: Negotiations”, *Outside the Teaching Machine*(New York: Routledge, 1993), 137, 139쪽.

우연적으로 구성되는 효과일 뿐 효과에 선행하는 본질로 존재하지 않는다.<sup>12)</sup>

여성을 언어오용이라 여기며 재현과 담론의 그물망 속으로 휘발시켜 버리는 탈구조주의에 대한 구바의 비판은 신랄하다. 구바는 탈구조주의 페미니즘이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시켜 페미니즘의 근거이자 행위 주체를 지워버리고 ‘여성주의적 여성혐오증’을 유포했다고 비판한다. 그녀의 글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들은 페미니즘을 병들게 만들고 여성을 무력한 단어로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구바의 이런 문제제기는 큰 반향을 얻지 못한 채 젊은 세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백인 중산층 이성애 페미니즘의 틀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수성전략으로 공격당한다. 신세대 이론가를 대변하는 로빈 위그만은 미국 아카데미 페미니즘의 변화과정을 질병과 자살로 이어지는 퇴화과정으로 읽어내는 구바의 해석 자체가 편향된 시각에 기초해 있다고 비판한다.<sup>13)</sup> 구바는 페미니즘 내부에 세대적, 인종적, 계급적, 성적 갈등과 긴장을 초래한 역사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내적 갈등과 비판을 페미니즘의 풍요로운 자산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불모의 거식증으로 읽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젠더 하나만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이런 시각은 서구 백인 여성만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타자들은 주변에 배치하는 인종적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백인여성이 주류로 군림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상처받은 백인여성의 회귀본능에

12)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고 섹스의 구성성을 주장하는 버틀러의 입장을 보려면 국내에 번역된 그의 저서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을 볼 것. 필자는 극단적 문화구성론에 입각한 버틀러의 시각, 특히 여성범주와 젠더이분법의 해체가 정치적으로 배제된 퀴어의 복권을 의도하는 올바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젠더와 젠더 트러블을 상징계의 층위에 위치시키고 실제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성차(sexual difference)를 지워버리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보려면 필자의 글 ‘젠더트러블과 성차의 윤리’, 『안과밖』 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을 참조할 것.

13) Robyn Wiegman, “What Ails Feminist Criticism? A Second Opinion”, *Critical Inquiry* 25.2 (1999): 362~79 참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위그만의 진단이다. ‘상처받은 백인성’은 위그만이 구바의 글에서 찾아낸 감정적 기제이다. 백인여성을 기득권 집단이 아니라 유색인 여성들로부터 비평적 폐기와 위협에 내몰리는 피해자로 느끼는 이런 감정기조는 최근 미국사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권리주장이 자유개념을 대체하는 부정적 조류와 조용한다.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과거에 비해 특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여러 차별방지법들을 공격하는 보수적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탈식민적·탈구조주의적 페미니스트에 대한 구바의 정서적 반감 역시 이런 상처받은 정체성에 근거한 권리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들을 수많은 차이들로 분할함으로써 여성범주 자체를 해체시키는 탈식민주의적·탈구조주의적 페미니즘에 대한 구바의 비판이 강한 정서적 반감과 피해의식에 몰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차이들을 가로질러 다시 공통의 여성으로 돌아가지는 감정적 호소가 그의 글에 깊게 배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위그만의 지적처럼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2단계 페미니즘에 내재한 백인주의 이데올로기와 이성애 중심성에 대한 후대 페미니스트의 비판이 때로 여성을 여성의 적으로 돌리는 파괴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상의 공통의 여성을 설정하여 그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차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는 인간이라는 추상적 보편성을 설정하여 성차와 인종적 차이를 지워버리는 남성주의적 방식을 여성 내부에서 되풀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의 여성들이 가진 복합적 경험들을 여성의 경험이라는 통칭 아래 묶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일반화가 어떤 가상의 보편적 여성 또는 특정 여성집단에게만 그런 경험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소수집단 여성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나가 아닌 여성들에 대한 인정은 불가피하면서 필수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현대사회에서 개개 여성들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집합적 정체성들이 서로 충돌하고 연대하는 복합적 과정에 페미니

즘이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윤리적 당위이자 현실적 조건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이지 않은 성에 대한 인정이 하나로 묶이지 않은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이해관계를 존중하지는 사회학적 요구나 다원주의적 논리로 제한되는 방식으로만 풀려서도 안 될 것이다. 여성이 하나가 아닌 것은 여성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위치가 여럿이기 때문만은 아니며, 그녀가 이 위치들이 구성하는 복수적·중층적 정체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구성하는 삼두체제로 흔히 불리는 계급, 젠더, 인종 외에 잠재적으로 무수히 늘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들을 덧붙이는 것으로 여성의 ‘존재’가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이점에서는 남성도 마찬가지이지만--사회적 제도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위치들의 총합으로 보는 입장은 여성이 이런 사회적 제도와 갖는 ‘문제적’ 관계를 드러내지 못한다. 하나이지 않은 성이란 말은 사회적 위치들로 환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위치들을 무너뜨리고 교란시키는 ‘실재’(the real)의 차원, 하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남성적 상징질서에서 지워졌지만 ‘잔여’이자 ‘잉여’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의 차원이다. 이 차원을 가리키기 위해 루스 이리거레이는 남성질서를 퇴비추는 ‘반사적 여성성’(speculative femininity)과 구분하여 ‘잉여적 여성성’(excessive femininity)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반사적 여성성은 남성이라는 하나의 성만 존재하는 일원론적 이항대립구도 속에서 남성을 반사하는 종속적 대립물로 구성되는 여성성이다. 하지만 잉여적 여성성은 이런 구도에 속하지 않으며 이분법에 기반을 둔 차이의 담론을 통해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현되거나 명명될 수 없다. 그것은 남근로고스 담론의 가능성의 조건이지만 존재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남성담론을 파열시키는 잉여로서 존재한다. 파열적 잉여(disruptive excess)로서 이 새로운 여성성은 여성 자신에게도 낯선 이질성이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지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필자는 버틀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에서, 이 잉여적 여성성의 실현이 개개

여성들을 여성이라는 집합적 총칭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 개인의 욕망과 충동에 충실한 길임을 지적했다. “여성이 자신의 내부에 낳은 타자성으로 존재하는 이 여성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남성적인 하나의 논리를 되비추는 여성성으로 길들여지거나 남성적인 세계에 편입됨으로써 유사남성이 되려는 유혹 모두를 뿌리치면서 남성 질서 자체를 거스르려는 존재의 모험이 필요하다. (...) 여성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이 되려면 하나 속으로 고유한 차이들을 통합해 들이는 남성적 보편의 폭력 뿐 아니라 여성 개개인들을 여성이라는 집합적 보편성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거부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sup>14)</sup> “여성 개개인들이 자신의 개체적 욕망과 향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사실로도 사회가 부여해준 성적 정체성으로도 혹은 정체성을 변태적으로 교란시키는 것으로도 자신을 환원시키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되는 모험, 자기 자신에게도 낳은 타자성과 만나는 모험이 필요하다.”<sup>15)</sup> 이 타자성과의 만남을 통한 주체화작업은 그것을 가로막는 남근적 질서를 거스르는 위반, 이 질서 자체로부터 자신을 빼내는 급진적 철회와 단절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리저레이가 페미니즘에 선사한 ‘하나가 아닌 성’이라는 슬로건은 앞서 지적한 두 층위, 즉 사회적·상징적 정체성의 차원과 상징화되지 않는 차원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상징계 속에서 특정 정체성을 부여받는 존재로서 여성들을 어느 하나의 위치로 환원시키지 않음으로써 여성 내부의 차이들을 지우지 않으면서 고착된 젠더 정체성에 트러블을 일으켜 다양한 젠더 정체성‘들’을 실험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여성들을 남근적 상징질서에 완전히 종속시키지 않음으로써 상징적 정체성과 과열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잉여적 차원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양 차원 모두에서 ‘하나가 아닌 성’이 되는 것은 남녀 이분법에 기초한 고착된 젠더우물에서 벗어나

14) 이명호, 「젠더트러블과 성차의 윤리」, 118쪽.

15) 위의 글, 119쪽.

는 길이 될 뿐 아니라 남성적 하나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단독적 개체로서 개개 여성들의 고유한 가능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 3. 2000년대 한국페미니즘의 지형변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계급의 복귀

한국페미니즘 담론에서 페미니즘의 질병이나 죽음을 외치는 목소리는 아직 크지 않다. 앞서 언급한 김양선과 임옥희의 글이 2000년대 들어 페미니즘의 정체성 상실과 나쁜 죽음을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비판적 목소리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반적 분위기는 차라리 암묵적 침묵이나 후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두에 80년대 여성운동이 페미니즘의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젠더범주를 계급범주에 종속시켰다고 비판하는 이른바 ‘영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들은 진보운동 내부의 가부장성과 성차별적 문화, 성희롱, 성폭력을 공개하면서 남성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선배 여성운동가들에게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영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은 세대 간 갈등을 부각시키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진보운동의 남성 중심성에 대한 비판과 여성주의적 시각의 관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일상의 젠더정치학’의 복원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지속적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주변화 되거나 사실상 침묵으로 떨어진다.

2000년대 들어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성적 소수자들이나 이주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일면서 여성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을 여성운동의 주요 의제로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성관계의 이분법 위에 성매매를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자 여성의 성적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보는 주류 여성운동가들과 성관매를 생존수단으로 선택한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난다. 주류 여성운동가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을 피해자가 아니라 성노동자로 인정하고 생존을 위해 합법적인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류 페미니스트와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발생한 틈은 그들과 우리는 하나라는 식의 자매애의 선언으로는 결코 메워지지 않는다.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적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섹슈얼리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 것은 성매매 방지법 사태가 2000년대 여성운동에 남긴 교훈이다. 여성 내부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이들이 주류 여성운동과 대립각을 세우는 흐름들은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동성애, 성매매와 같이 기존의 성규범에 의해 억압되었던 문제들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섹슈얼리티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이 역시 현재는 출발선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황정미의 지적처럼 여성들 간의 차이를 소통하고 연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지만, 여성 내부의 계급적, 인종적, 지역적, 세대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확인하고 인정하는 일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sup>16)</sup>

인종문제가 계급문제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빈곤과 계급격차는 인종주의적 방식으로 해결되지만, 이주민 유입이 미국만큼 두드러지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모순은 이른바 양극화 현상으로 표출되는 계급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물론 계급문제가 88만원세대 담론으로 표상되는 세대 착취의 형태로 나타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세대불평등 역시 계급문제가 치환된 형태에 가깝다. 소비자본주의의 환상이 무너지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항시적 고용불안과 계급 양극화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자 화급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다. 위험사회, 격차사회, 불안사회 등으로 다양하게 호명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대에 페미니즘은 젠더범

16) 황정미, '한국 여성운동의 의제와 성찰성', 『안과밖』 21호, 2006년 하반기, 35~39쪽 참조.



주를 다시 계급범주와 연결시켜 사유해야 하는 저 80년대적 문제의식으로 복귀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어떤 복귀도 차이를 배태하지 않은 단순 복귀는 아니다. 페미니즘이 놓여있는 현실적 지형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페미니즘 이론 논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성 범주의 구성성과 젠더대립구도의 해체를 통한 이른바 '복수적 젠더들'의 출현과 여성 내부의 차이의 대두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 아니 젠더대립구도의 변모 자체를 강제한 변화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지배와 대중문화의 압도적 위력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젠더, 인종, 민족 같은 전통적 경계를 넘어 개인의 능력에 기반을 둔 무한 경쟁과 효율성을 사회 운용원리로 채택한다. 공/사 영역의 분리에 기초한 성별분업과 가족의 점진적 해체는 자본주의 하에서 시대적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비정규직 여성과 여성 내부의 양극화라는 모순을 동반한다. 이에 따라 여성으로서의 연대보다는 여성들 사이의 계급적 차이가 더 크게 부각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여성에게는 하층계급 여성에게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제공하는 전업주부이자 양육자로서 전통적 여성성의 이데올로기가 위기에 처하게 된 현상은 분명하다. 남녀 대립에 기초한 전통적 여성성 논의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힘든 현실적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유포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성별, 인종, 나이 등 개인을 구속하는 거추장스러운 표지를 떼어내고 자유롭게 자신을 개발하는

17) 필자는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인기를 모은 TV 드라마 <섹스 앤더 시티> 분석을 통해 미국에서 포스트페미니즘문화현상이 대두하게 된 젠더지형의 변화를 살핀바 있다. 이를 보려면 필자의 글 '로맨스와 섹슈얼리티 사이: 젠더 관계의 변화와 포스트페미니즘 문화현상', 『영미문학 페미니즘』 18.1(2010, 여름)을 참조할 것. 한국사회 젠더관계에 대한 이 글의 분석은 부분적으로 위 글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이데올로기, 이른바 ‘기업하는 자아’(enterprising self) 이념이다. 기업하는 자아의 이미지는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행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표상이다. 이 표상 속에서 개인들은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묶여 있다 해도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는 담론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행동한다. 이데올로기적 효과로서의 자유가 현실의 구속을 압도하는 현상이 헤게모니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조형적 자아와 자기 개발하는 자아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힘을 기른다는, 이른바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린 가능성이지만, 주체의 내면을 구성하는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sup>18)</sup> 한국사회에서 IMF 경제위기는 이 담론의 기저를 흔드는 물질적 현실로 작용했다. 하지만 소비공간에서 이 담론이 발휘하는 위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특히 젊은 세대 여성들에게 소비공간에서의 자유와 미적 취향의 개발은 강력한 유혹이다. 물론 소비에서 자아의 미적 창조를 경험하는 것은 경제적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에게만 해당된다. 하지만 소비를 통한 라이프스타일의 창조는 비단 중산층 여성들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서 문화적 지배력을 획득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공간을 떠돌았던 명품녀, 된장녀를 비롯하여 소비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수많은 호칭들을 떠올려보면 이런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공간에서 발휘되는 자유효과는 이제 우리시대 진정한 지배문화의 위치에 올라선 대중문화에서 더욱 확대된다.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 공히 여성해방을 위한 변혁운동이자 실천으로서 페미니즘이 대중문화와 접촉하면서 ‘대중적 페미니즘’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대중문화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 집단이 바로 ‘소녀들’(girls)이다. 소녀들의 역사적 등장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현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소

18) 한국사회에서 기업하는 자아와 자기개발 담론의 형성과 지배를 분석한 글로는 서동진, 『자유 의지, 자기개발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개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을 참조할 것.

녀들의 다수가 언니 페미니스트(혹은 ‘올드’ 페미니스트)와 거리를 두면서 페미니즘 운동에서 소녀들의 구조적 공백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대학사회에서 여성학 강좌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여학생회가 여자 대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상을 떠올려 보면 소녀와 페미니즘 사이에 발생한 괴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촛불소녀’처럼 대중문화가 유포하는 소녀상과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발랄하고 개성적이고 해방적이라는 촛불소녀의 경우에도 언니 페미니스트들과 여성주의적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비단 대중문화 뿐 아니라 이른바 고급문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경향적으로 발견된다. 2000년대 한국문단에서 젊은 여성소설가와 시인과 비평가는 많지만 페미니즘은 희미해지거나 실종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젊은 여성작가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은 ‘후지다’는 느낌, 그리하여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편재해있다는 인상은 받는 것은 필자가 한국문단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적 관찰자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소비자본주의와 기업하는 자아 이데올로기의 지배, 대중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올드 페미니스트와 신판 여성성의 대립은 2000년대 한국여성들이 서있는 역사적 맥락이면서 가부장적 이성애 자본주의에 변형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적 힘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소비자본주의의 화려한 스펙터클을 부수는 트라우마적 순간이다. 그것은 소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노동, 소비자본주의에 통합되지 못한 계급이 복귀하는 순간이다. 이 트라우마적 복귀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내파할 수 있는 현실적 힘으로 전화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탈정치화의 바람으로 흘러갈 것인지 예단할 수는 없다. 슬라보예 지젝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는 저서에서 “오늘날 좌파에게 장시간의 썸싱이 필요할 지 모르겠다.” “실행 가능한 전지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좌파의 무능력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현 위기의 주된 희생자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좌파 자신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sup>19)</sup> 그는 좌파가 오래 전 잃어버렸지만 새로이 복원해야 할 공산주의는 역사의 끝에 도달해야 할 확실성이 아니라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자본주의의 기차를 멈추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도래한다고 설파하면서 혁명적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젝의 과장된 수사에 순진하게 빠져들 필요는 없지만, 좌파의 위기를 실천적 개입을 통해 돌파하려는 그의 문제의식 자체는 본받을 만하다.

#### 4. 울프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페미니즘의 미래: 차이를 통해 도달하는 보편성의 지평

‘위기’라 부르든 ‘죽음’이라 부르든 아니면 보다 온건하게 ‘정체국면’이라 부르든,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이 마주하고 있는 곤경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실천적 개입을 통해 페미니즘의 해방성과 정치성을 다시 열어젖힐 수 있을까? 나는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페미니즘의 위기는 페미니즘의 제도적 정착과 부분적 성공의 결과이다. 물론 다수의 여성들이 자율적 공간과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경제적 궁핍과 심리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이 제도적 평등과 경제적 힘을 어느 정도 획득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울프가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이라는 긴 이름을 부여한 중산층 여성들은 1년에 500파운드의 돈을 벌고 자선단체에 3기니를 기부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독립성을 획득했다. 물론 이 독립성은 남성의 그것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남성과 겨루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평등을 충분히 성취한 것은 아니다. 그녀가 여자대학의 건립과 여성들의 직업마련을 위한 협회에 각각 1기니씩을 기부한 것은 여성들의 지적 성취와 경제적 능

19) 슬라보예 지젝, 김성호 역,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희극으로』, 창비, 2010, 39, 38쪽.

력이 더 커져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을 획득하지 못했다. ‘여전히’ 지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이 여성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쟁방지를 위한 노력에 기부를 요청하는 어느 신사의 편지를 받고 그녀가 그 대의에 공감하며 1기니를 ‘조건 없는 선물’로 주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 여성도 남성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올프는 돈을 기부하면서도 전쟁방지 협회에 가입하지는 않겠다고 결정한다.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여성과 남성이 달라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올프에게 여성이 남성과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란 전쟁방지와 평화증진을 위해 문화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임박한 전쟁의 위협 앞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남녀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대의’에 그녀가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실상 이 보편적 대의는 그녀가 조세핀 버틀리의 말을 인용하여 페미니즘의 대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여성들만의 권리가 아니다. 우리의 주장은 이보다 더 광대하고 심오하다. 우리는 모두의 권리를, 정의와 평등과 자유의 위대한 원칙을 몸으로 존중하는 모든 남녀의 권리를 주장한다.”<sup>20)</sup>

남녀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성이라는 대의는 차이의 담론이 지배하면서 한동안 페미니즘 담론에서 사라진 가치이다. 하지만 올프는 보편적 대의라는 주장에 흔쾌히 동의한다. 올프의 예리한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것은 보편적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서는 성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점이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반복하거나 당신의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말

20) 버지니아 올프, 테헤수 옮김, 『3기니』, 여성사, 1994, 189쪽.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표기한다.

과 새로운 방법을 창조함으로써 당신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당신 단체의 외부에서 그 목표를 위해 일함으로써 당신의 전쟁방지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는 우리 둘 다 같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평등과 자유라는 위대한 원칙을 몸으로 존중하는 모두의, 모든 남녀의 권리”를 주장하자는 것이지요. (...) 당신 단체의 가입신청서로 되돌아가 봅시다. 앞에서 제시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청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당신과 같음을 가능한 실질적으로 증명하고자 여기에 1기니를 기부합니다. 이 돈은 당신 스스로 부가한 조건 외에 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선물입니다. (『3기니』, 255쪽)

울프가 ‘국외자 단체’라 부르는 새로운 여성단체는 영국인으로서 어떤 특권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리하여 여성에게 ‘조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가 밖의 단체’이다. 또 그것은 과시와 명성에 휘둘리지 않고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으며 지도자나 위계질서도 없는 단체이자, 전시에 군수품 제조나 부상병 간호를 거절할 의무를 지키고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가도록 선동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단체이다. 남성 질서의 ‘국외자’로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새로이 만들어내는 언어와 방법은 여성만의 독특한 차이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해준 젠더 정체성과 제도화된 여성성(이리가레이의 남성적 동일성을 되비추는 종속적 대립물로서의 반사적 여성성)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 또 여성으로서 억압당하고 차별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의 차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여성에게 열린 것인가? 아니면 교육받은 남성의 딸이라는 중산층 여성들에게만 열린 것인가?

『자기만의 방』에서 울프는 여성이 여성임을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차가 자유롭게 발현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메리 카마이클이라는 가상

의 여성작가를 설명하면서 울프는 그녀가 “여성으로서, 그러나 여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여성으로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책이 그 자체를 의식하지 않을 때에야 생겨나는 그 신기한 성적 자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말한다.<sup>21)</sup> 성차는 상대 성과 의식적 대립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 자체를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어떤 특이한 성적 특질을 말한다. 그것을 미리 규정하거나 한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고정된 본질로 ‘있음’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음’을 말할 수도 없는 이 독특한 (비)존재는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 자의식적 젠더 대립구도를 넘어선 지점에서 발현되는 비대칭적 차이는 여성 자신에게도 낮은 이질성이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지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여성들이 역사 속에 진정 자신이 되는 열린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여성이 자신이 되는 열린 과정이란 사회적으로 주어진 현실적 정체성의 차원만이 아니라 충동과 욕망의 수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과정은 울프의 생각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로운 합일, 후대 페미니스트들에게 숭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양성성’(androgyny)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여성으로서 온전한 욕망과 향유를 가로막는 현존질서를 거스르는 존재의 모험과 실천적 행위를 통해 창조되는 열린 가능성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존재론적·정신분석학적 물음을 정치적 층위로 이전시킬 필요성을 느낀다. 울프도 지적하듯이 여성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필요조건은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지만 이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 조건을 얻기 위해 여성들은 오랜 세월 투쟁해 왔고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에 맞서 원한과 분노를 표출해왔다. 그녀가 여성대학의 건립과 여성의 직업을 마련해주는 협회

21) 버지니아 울프, 이미에 옮김, 『자기만의 방』, 예문, 2002, 189면.

에 각기 1기니를 기부하기로 한 것은 여성의 잠재력을 실현하기에 아직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과 대립각을 세우고 남성에 대해 원한과 분노를 느끼는 단계를 넘어 ‘여성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려면 사회적 특권과 경제적 잉여를 거부하고 가부장적 질서의 ‘국외자’가 되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결단 속에는 이른바 “무임금 노동자들”라 할 수 있는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이 돈으로 환산된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도록 압력을 넣는 일과 동시에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일도 포함된다. 집안에서 무임의 가사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아버지와 오빠와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는 의존상태를 벗어나는 일이 시급한 만큼이나 청빈한 삶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다. 방향은 다르지만 전자와 후자 모두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체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청빈은 먹고 살만한 충분한 돈을 뜻합니다. 즉, 당신은 어떤 다른 인간존재에게서도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어야 하고 심신의 발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 여가, 지식 등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한 푼도 별지 않는 것입니다. (『3기니』, 148쪽)

경제적 독립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일이 여성들에게 중요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 여성들에게 이 조건이 달성된 사회에서 더 많은 몫을 달라는 요구는 더 이상 진보적일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소비주의 하에서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고 더 많은 소비는 더 많은 ‘자유효과’와 더 큰 자아의 파워를 주지만 실상은 돈의 노예로 만들 뿐이다.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불공정한 소비에 의존해있는 자본주의 질서로부터 물러나는 것, 울프가 “수동성의 실험”(212)이라 부른 저항방식을 실천해야 한다.

여성들이 만든 국외자 단체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질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 부정적 저항을 한다. 무관심의 태도를 견지하며 “하지 않는 것”은 기존질서와 대립각을 세우며 투쟁을 벌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로부터 자신을 국외자로 빼내는 행위이다. 이는 알랭 바디우가 ‘빼기’(subtraction)의 정치성이라 부른 것과 상통한다. 빼기란 헤게모니 장으로부터의 후퇴일 뿐 아니라 이 장의 진정한 좌표를 드러내면서 그 장 자체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빼기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규정력이 점점 커져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의 간극이 극도로 넓어지는 지금, 여성들에게 진정 어려운 것은 이 질서로부터 자신을 빼내고 배제된 자들의 보편적 해방을 위해 싸우는 일이다. 20세기 초 울프에게 교육받은 아버지의 딸들은 무급 가사노동자였다. 아버지가 주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긴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돈에 휘둘려 원한과 공포에 짓눌려 있는 집안의 프롤레타리아였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가정의 천사로 남기를 요구했다. 이 아버지의 요구에 맞서 자기 안의 숙녀를 죽이고 여성을 죽이는 일이 그들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였다. 하지만 집안의 아버지가 자본의 아버지로 모습을 바꾸고 돈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오늘날, 신판 아버지의 질서 앞에서 공포로 주눅 들지 않고 정신의 자유를 유지하는 ‘지조’를 지키며, 특권을 주려는 자들을 ‘조롱’하고, ‘거짓 충성심을 배제’하며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시대 국외자 단체에 가입한 여성들이 따라야 할 행동지침이자 실천덕목이다. 울프가 말한 이 네 가지 덕목은 개인적 차원의 소박한 도덕률로 보인다. 그렇다. 그것은 분명 개인적이다.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기존 사회가 설정한 도덕률을 충실히 따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의 지배권력으로 군림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로부터 자기 자신을 빼냄으로써 그 질서의 구조적 폭력에 맞서는 주체적 행위, 개별 여성으로서의 단독적 차이를 여성이라는 가상의 집합성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거부하면서 한 개체적 존재로서 시도하는 1인 저항행위이다.

여성이 원하는 바를 현실화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와 평화라는 보편적 대의에 남성과 함께 참여할 때 페미니즘은 급진적 도전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 페미니즘에 실종된 것이 바로 ‘차이를 통해 도달하는 보편성의 새로운 지평’이 아닐까. 페미니즘이 미래의

비전과 정치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소비 대중문화가 부여하는 신관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내부의 '소녀'를 죽이고 배제된 자들을 양산하는 자본의 구조적 폭력에 맞서 모든 뭉 없는 자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할 때 급진적 정치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임옥희, 『채식주의자 뱀파이어: 폭력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기』, 여이연, 2010.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버지니아 울프, 태혜숙 역, 『3기니』, 여성사, 1994.

\_\_\_\_\_, 이미애 역, 『자기만의 방』, 예문, 2002.

슬라보예 지젝, 김성호 역,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희극으로』 창비, 2010.

### 2. 논문

김양선,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밖』 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40~60쪽.

이명호, 「2000년대 한국여성의 위상과 여성문학의 방향」 『문학수첩』 13호, 문학수첩사, 79~94쪽.

\_\_\_\_\_, 「젠더트러블과 성차의 윤리」, 『안과밖』 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90~119쪽.

\_\_\_\_\_, 「로맨스와 섹슈얼리티 사이: 젠더 관계의 변화와 포스트페미니즘 문화현상」, 『영미문학 페미니즘』 18권 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0, 89~116쪽.

- 정소영,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페미니즘 비평: 보편성과 여성, 그리고 문학」, 『비평과 이론』 12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07, 37~55쪽.
-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남성성과 젠더』 권김현영 편. 자음과모음, 2011, 15~33쪽.
- 황정미, 「한국 여성운동의 의제와 성찰성」, 『안과밖』 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10~39쪽.
- Deborah Siegel, *Sisterhood Interrupted: From Radical Women to Grrls Gone Wild*, New York: Palgrave, 2007.
- Gayatri Chakravorty Spivak, *Outside the Teaching Machine*, New York: Routledge, 1993.
- Robyn Wiegman, “What Ails Feminist Criticism? A Second Opinion”, *Critical Inquiry* 25. 2 (1999): pp.362~379.
- Susan Gubar, “What Ails Feminist Criticism?”, *Critical Inquiry* 24.4 (1998): pp.878~902.
- \_\_\_\_\_, “Notations in Medias Res”, *Critical Inquiry* 25. 2 (1999): pp.380~396.

## Abstract

### Transformations in Gender Structures and the Future of Feminism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Feminism-

Lee, Myung-ho

This paper attempts to read the emergent new social phenomena both in Korean feminism in the 2000s and in American feminism in the mid-1990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nd proposes an alternative ethical possibility based on Virginia Woolf's insight in *Three Guineas*. A common phenomenon of the death or disappearance of feminism emerged in both countries. With the domination of neo-liberalism, the binary gender opposition was weakened; along with the emergence of differences within women, gender difference was obscured and hybrid genders appeared. The opposition of the new regime of femininity and old feminism emerged in the realm of mass culture, and the discourse of enterprising self took the initiativ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marked the traumatic moment in which the crisis of neoliberal capitalism came to be visible and the repressed class returned. The return of the class in Korea appears through class polarity, different from America where class differences are often displaced into racial or ethnic differences.

Interpreting the transformations of gender structure in both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 try to combine Luce Irigaray's argument of "this sex which is not one" with Virginia Woolf's. The argument of "this sex which is not one" indicates not

only the differences and complexities of women in different social positions irreducible to Woman but also the femininity erupting as excesses in the phallic symbolic order. This new femininity named by Irigaray as 'excessive femininity' remains "other," strange, and unknown even to women themselves; it signifies an individual woman's attachment to her own singular desire, which cannot be totalized under the universal category of Woman. I argue that Irigaray's excessive femininity can be combined with Virginia Woolf's sexual difference, which is realized in the realm transcending self-conscious gender opposition. In *Three Guineas*, Woolf's argues that women should contribute to universal cause of the emancipation of humanity and the promotion of peace based on their singular sexual difference as outsiders in male-dominated society. Universality grounded on sexual difference can be attained when women withdraw themselves from neo-liberal capitalism and resist its structural violence.

Key words : singularity, feminism, post-feminism, difference, excessive femininity  
gender trouble, class, universality, identity, Virginia Woolf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